

성 유대절 베드로

# 청담동성당

강남구 삼성로 720 (홈페이지: www.cdspd.org)  
 사무실: 02)3447-0750~1 팩스: 02)3447-0752

주 임 신 부 : 김민수(이냐시오)  
 1 보좌신부 : 김경영(영주바오로)  
 2 보좌신부 : 김세영(파비아노)  
 전 교 수 녀 : 김영희(비앙카)  
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박선옥(에드워드)  
 사 목 회 장 : 장병철(율리아노)  
 연 령 회 장 : ☎ 010-5411-5837

주일미사	토요일 15시(초등부), 토요 저녁미사 : 19시 / 주일 : 6시, 9시, 11시(교중미사), 15시(중고등부), 17시, 19시		
평일미사	월 ~ 토 : 6시 / 화 ~ 금 : 10시 / 화 ~ 금 : 19시	고해성사	주 일 미사 전 30분
봉 성 체	매월 둘째 목요일 10시 미사 후		평 일 미사 전 15분
관면흔배	매월 둘째 토요일 17시	유아세례	출수 달 첫째 토요일 17시

**소 식**

**금주의 성경 암송**

“하느님의 은총으로 지금의 내가  
 되었습니다.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 
 은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.”  
 (1코린 15,10)

◎ 병자영성체: 5월 18일(목) 10시 미사 후

◎ 아버지와 함께하는 자전기 성지순례

- \* 대상: 아버지와 유치부, 초등부, 중·고등부 학생
- \* 일시: 5월 9일(화) 오전 8시, 성당마당 출발
- \* 장소: 공세리 성당 / \* 회비: 가족당 5만원
- \* 문의: 강 마르첼리노(010-4514-1215)

◎ 2017년 하반기 혼배 안내

\* 2017년 7월 ~ 12월 하반기 혼인성사 예약을 신청 접수받습니다.

▶ 본당 신자 : 우선 신청 받음 (선착순)

본당신자를 우선하여 신청 받고자 하오니 5월 7일(오늘) 부터 미시 본당 사무실로 오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▶ 타본당 신자 : 선착순 예약

일시: 2017년 5월 21일(주일) 오전 10시, 성당 사무실  
 방법: 선착순 (교적 증명서, 예약금 준비)

◎ 수요 한낮의 음악회

일 시	시 간	주 제
5/10(수)	12시 30분	‘연과 피아노의 달콤한 어울림’ 더 하우스 앙상블
5/17(수)	~	‘파가니니와 탕고’ 기타와 바이올린 듀오 칸타빌레
5/24(수)	13시 10분	‘집시의 노래’ 보컬콘서트 서울 성악 앙상블

◎ 2017년 사랑의 바자회 아나바다 물품 접수 및 바자회 티켓 판매

- \* 해외선교와 소외된 불우 이웃을 돕기 위한 바자회 물품 및 금전 기부를 성당 마당에서 접수 받고 있습니다.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 (※ 사용불가 제품 및 입을 수 없는 옷은 가져오지 마세요.)
- \* 바자회 티켓은 1만원 단위로 구입 가능하며, 각 여성구역, 총무단,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판매하오니 교우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

◎ 2017년 교무금 납부 현황  
 [3,828세대 중 1,033세대 납부 27%]  
 \* 2017. 4. 23 기준

지 역	총세대수	납부세대	납부비율(%)
1구역	268	93	34.7%
2구역	182	68	37.4%
3구역	181	65	35.9%
4구역	187	55	29.4%
5구역	247	83	33.6%
6구역	183	56	30.6%
7구역	105	32	30.5%
8구역	127	44	34.6%
9구역	223	68	30.5%
10구역	134	38	28.4%
11구역	120	46	38.3%
12구역	179	60	33.5%
13구역	83	33	39.8%
14구역	186	74	39.8%
소 계	2,405	815	33.9%
15구역	1,423	218	15.3%
총 계	3,828	1,033	27.0%

\* 교무금은 매월 일정 금액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으로 신자 모두의 의무이며, 감사의 표현입니다. 교무금은 본당과 교구의 발전 및 유지를 위해 신자분들의 교무금 납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 정성껏 봉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◎ 초·중고등부 주일학교 교사 모집

- \*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하실 선생님을 모집합니다.
- \* 문 의: 초등부 (신 루치아노, 010-8701-4750)  
 중·고등부 (안 마르첼리노, 010-4722-9504)

◎ 5월 9일(화): 본당 사무실 쉽니다

\* 19대 대통령 선거일로 사무실 휴무이오니 5월 10일(수)까지 미사 봉헌 신청하실 분들은 5월 7일(오늘)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◎ 5월 7일(오늘): 성소 주일 2차 헌금(교구)

**모 임**

- \* 5월 7일(주일): 독서단
- \* 5월 8일(월): 춘천교구 후원미사(10시) / 성령 기도회 (자체기도)
- \* 5월 9일(화): 여성 Co.
- \* 5월 10일(수): 여성 구역장모임 / 성모회 / 시몬회
- \* 5월 12일(금): 남성 Cu.
- \* 5월 13일(토): 태교모임 / 청소년 분과

성가번호 입 당: 128    예물준비: 510, 216    성 체: 496, 501, 165    파 견: 241

화 답 송

주 님 - 은    나 의 목 - 자    아 쉬 울 것 없 어 라

## 지금 이 순간

“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/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뤄질지 몰라  
여기 바로 오늘 /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/  
참아온 나날 힘겹던 날 다 사라져간다. 연기처럼 멀리”

뮤지컬 “지킬 앤 하이드”에 나오는 노래이다. 지킬박사는 정신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위해, 신약을 개발한다. 임상실험 대상을 찾지 못해서, 스스로 임상실험의 대상이 된다. 마음이 급하다.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순간 지킬은 인간의 내면에 무의식적으로 갖게 된 선과 악의 이중성을 분리할 수 있다고 믿는다. 그러나 지킬은 제2의 인격체인 하이드가 되어 인간이 모순되고 악한 모습이 보인다. 지킬이 신약을 개발하며 실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지체하지 말아야 했던 것도 따지고 보면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. 아버지가 사탄의 함정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며, 구원되기를 열망하고 지금 이 순간을 노래하던 지킬의 간절한 소망을 느낄 수 있었다.

“부활하신 예수님을 단순하게 기억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. 2천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 그 분이 남기신 사랑의 행위, 대속의 의미 모든 것을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에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고 현재화시켜야 한다.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현재화시키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. 자신을 포기하고, 희생하여 자신을 내려놓고 떠나는 사람. 이러한 것이 죽음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다.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다. 묵은 인간, 낡은 인간으로 살아가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.”

부활 미사 때, 신부님의 강론을 듣고 나는 지금 이 순간 ‘묵은 인간인가,’ ‘낡은 인간인가’를 물었다.

내가 구렁텅이에 빠질 때마다 예수님의 연민에 은혜를 받았다. 세례를 받고 다음 날 외출에서 돌아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었다. 한강대교를 지나는데 갑자기 눈 앞이 환해지더니 반짝이는 강물 위로 예수님이 서 계시며 나를 바라보았다. 그 광채가 눈이 부시고 아름다워서 황홀경에 빠져 있었다.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면 환시로 나타난 예수님을 가슴에 새기며 축복의 기도를 했다.

사순기간 중 피정시간에 죄를 고백하고,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. 콧물과 눈물로 엉망진창이 되었다. 닭의 울음소리가 어둠을 거치고 새벽을 알리듯,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물려들었다. 미사가 끝나고 성가대에서 할렐루야를 합창했다. 예수님이 부활하여 성모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연상되어 미소가 절로 나왔다. 지금 이 순간 낡은 인간에서 벗어나 부활의 기쁨을 노래한다.

<청담수필, 레지오 단원, 박현주 데레사>